

빛나는 우리나라 금속예술의 '혼'을 찾아

《한국의 금속공예》 펴낸 이호관 문화재전문위원

인류역사상 획기적인 변화가 '불의 발견' 이라면, 금속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문명의 단계로 깊숙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대인들의 불심을 우리나라에 했던 거대한 범종에서부터 아낙네가 쓰던 가위나 거울 같은 일상용품까지 금속을 재료로 한 우리 선조들의 유물에서는 장인정신이 담긴 기품과 정교함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재관리국 학예직 1호로 첫발

그 섬세한 예술의 '혼'을 따라 한국의 금속공예에 평생의 연구집념을 바친 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금속공예》(문예출판사)를 7년여의 집필 끝에 완성한 문화재전문위원 이호관씨(63). 61년 가을에 발족한 문화재관리국에 학예직 1호로 첫발을 들여놓은 후 지표·유적 조사와 각종 문화재 발굴 참여 등 35년간 오로지 문화재 연구의 길로 내달려온 인물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이호관씨의 머리속을 떠나지 않은 한가지는 바로 한국의 '금속공예'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였다. 고분에서 출토된 개개 유물에 대해 양식과 형태만 설명할 뿐 전체 한국고대미술사에서 그 유물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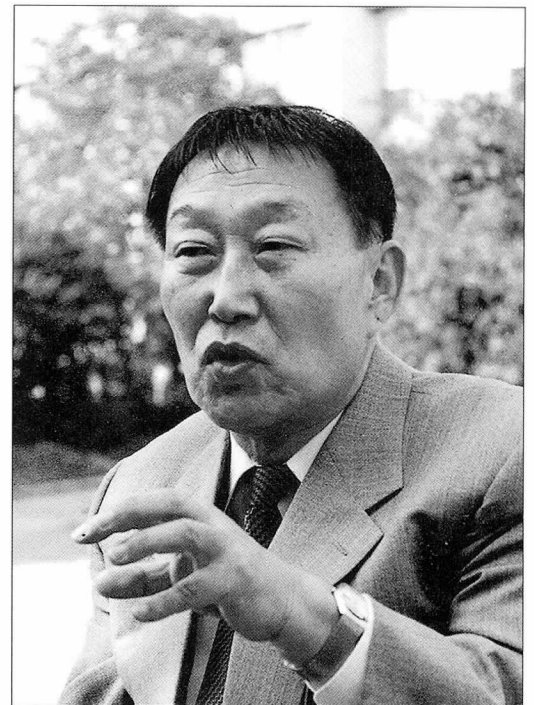
조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다. 원래 역사를 전공한 이위원의 이러한 '뿌리캐기' 탐구자세는 곧 금속공예만을 다룬 국내 최초의 역사를 탄생케 한 원천이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분을 연구한다면 대부분 무덤의 양식이나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맙니다. 이 유물이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죠. 삼국시대 유물전시회를 열면 관람객은 그저 금으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들에만 몰려듭니다. 제대로 그 유물을 알려면 그 시대에 금은 어디서 구했는지, 청동은 중국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부터 가져왔는지, 당시 어떠한 시대적 종교·정치상황에서 그런 문화유물이 가능하게 됐는지에 무관심합니다. 모든 유물에 대해 추정할 때까지 추정하는 것이 문화재 연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크게 전반부의 《한국의 금속공예품》에서 삼국시대 청동기 유물, 관과 관모, 과대와 요패, 장신구 등을 살피고, 후반부의 《통일신라 이후의 금속공예》에서 통일신라 이후 고려·조선 때까지 범종과 불교의식구, 사리장엄구 등의 금속공예품을 시대별 제작 기법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금속기, 즉 청동기는 기원전

금속을 재료로 한 우리 선조들의 유물에는 장인정신이 담긴 기품과 정교함이 깃들여 있다. 그 섬세한 예술혼을 따라 한국의 금속공예에 평생의 연구집념을 바쳐 오롯한 결실을 맺은 이호관씨의 저서는 금속공예를 다룬 국내 첫 저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호관 문화재 전문위원.

700년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 때 풍부한 금의 사용은 동양의 고대국가들 중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또 출토된 다량의 부장품들은 당대의 세련된 금속문화 수준을 전하고 있다. 금속의 공예문화를 낳게 한 합금술에는 한국적인 독특함이 발견되는데, 구리에 주석을 섞는 일반 청동기와 달리 약간의 아연과 철분을 섞는 것이 특징. 선명하고 깨끗한 문양은 이러한 독특한 합금술로 상감, 입사 등 고도의 장식기법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세기 후반부터 전래된 불교문화는 한반도 금속공예의 중요한 전기가 된다.

삼국시대에 제작된 금속공예품은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각국마다 화려함과 정교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금관의 경우, 고구려·백제는 비단류의 관·관모의 본체에 금제관을 장식으로 이용했음에 비해, 신라·가야는 특이한 금동제·은제의 관과 관모를 착용했다. 크기와 화려함에서 금제관 다음으로 주목받는 허리띠·요패는 신라의 것이 가장 화려한데, 진골에서 평민까지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해 사용했음도 드러난다. 귀걸이 역시 신라의 것이 가장 화려·섬세하고 그 예가 많아 귀족들 사이에서 흔히 패용했던 장식품임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의 금 은제 장신구는 그 화려함이 뛰어난데, 특히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팔찌는 금판으로 된 고리 표면에 '누금세공'(금가루나 금실을 이용해 정교한 장식을 만드는 금속세공 기법)을 하고 청옥·남색옥 등을 감입(嵌入)한 기술로 고도의 정밀성과 치밀성을 보여 준다.

한국미술의 아름다움 총집합 '범종'

한국미술의 특징을 '선'과 '형'의 아름다움, '자연의 예술'이라 한다면, 그것이 가장 집약돼 나타난 금속공예품은 범종(梵鐘)이다. “한국의 범종은 용두에서부터 종신에 이르는 각 부분이 금속공예의 총집합체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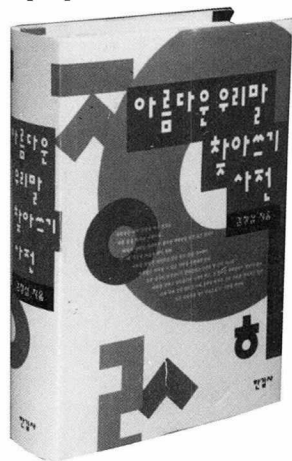
화제의 책

우리말의 제자리 찾아주는 교과서

김정섭 저음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쓰기 사전》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과 컴퓨터 통신에 의한 우리말 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쓸 수 있는 사전이 나와 반갑다. 40여년간 교단에서 올바른 우리말 가르치기에 힘써온 김정섭씨(부산 장림여중 교감)는 지난 85년부터 '우리말 바로쓰기 모임'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들을 접하며 잘못 사용된 우리말 바로 고치기 운동을 실천해왔다.

이번에 펴낸 사전은 <바른말 쓰기>와 <우



리말 쓰기>의 2부로 구성, 잘못 사용되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례와 우리말 자리를 비집

고 들어온 한자말 일반말 서양말을 꼬집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엮었다. 예를 들어 '끄름 → 그을음' '덤씩 → 덩석', '음주문화 → 음주습관, 술버릇' '흰수작 → 흰수작'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심코 쓰게 되는 말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랑 → 어림, 짐작, 대충' '카탈로그 → 본보기책, 차림표' '게시문 → 알림글' '단일민족 → 한겨레' '커브 → 굽이돌이, 굽이, 모퉁이' '켄버스 → 그림베, 바탕천' '힌트 → 귀뜸, 눈짓' 등. 남의 말이 우리말 자리에서 얼마나 주인공세를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준다. 글쓰기와 글 다루는 일을 하는 이에게 필수적인 사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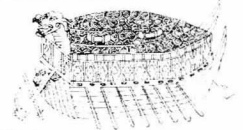
한길사/A5신/1136면/30,000원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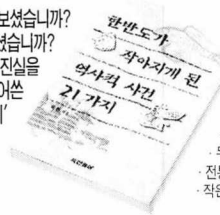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우리들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들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봐선 조선의 금서목록
· 적은 거리를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슬슬 읽으면 썩씩 들어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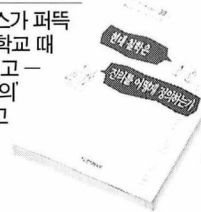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 경태 지음 / 6,800원



수 있습니다. 문양이 다양하고 '비천상'이나 '보살상' 등이 율동성 있는 질감으로 표현됐고, 조각미도 뛰어나지요. 종의 주조기술이나 합금기술이 시대에 따라 다르면서도 그 특징을 균형있게 각부 양식 속에 잘 살려 놓고 있으니, 범종이야말로 한국 고대미술의 '미'와 '선'과 '형'의 총집합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종의 합금술이라든가, 종소리의 음도시술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한 것은 아쉬워한다. 더욱이 '부처님 말씀'을 담아 깊게 울려 퍼지는 그 '천상의 소리'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었는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음률과의 연계 속에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고학에서부터 금속학·종교학·음악학·민속음악 등 모든 학문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작업이라는 것.

이위원은 "한국의 범종 역시 종교적 유물인 만큼 그 양식과 형태연구만으로도 그칠 게 아니라 당연히 종교 발달과 사상의 변천 속에서 탐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는 향로·금기·요령·석장·사리장·염구 등의 불교의식구와 거울·문고리장식·벽걸이장식·귀꽃·금동제 가위 등 생활 용품을 통해 한국 금속공예의 발달흐름을 살피고 있다.

그동안의 체험이 녹아든 연구결과가 온축돼 있음에도 이위원은 이번 저서에 부족함을 느낀다. 우선 '상감'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의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또 금속공학과 함께 유물분석을 해 주물을 재현함으로써 정확하고 구체적인 주물분석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 개정판 때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등불

함남 원산 태생의 이호관씨는 그림에 재주가 뛰어난 화가지망생이었다가 문화재관리국에 발을 들여놓은 후 35년간 그야말로 '기동타격대'처럼 전국 산아를 누비며 '발굴'과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가 참여한 발굴작업으로는 공주 무령왕릉(71년) 암사리 선사유적(71년) 안동수물지구탐사(73년)를 비롯해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첫 장을 연 신안해저유물조사(76~84년) 등 수없이 많다. 발굴을 둘러싼 일화도 헤아릴 수 없다. 도굴꾼과 맞닥뜨려 생명에 위협을 받던 일, 폭염 속에서 잔뜩 찌들며 고생했던 해저유물조사 등,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소중한 추억의 한 갈피다.

그가 한국고고미술사학계에 끼친 영향 또한 술한 보고서와 논문 저서에서 드러나 있다. 《범종》(대원사), 《북한문화유적발굴개요》(문화재연구소), 《한국범종조사연구》(문화재연구소) 등 현장체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물 외에도 <강화도 전등사청동불좌상> <신라범종의 각부문양소고> <고려시대 범종양식의 연구> <고려 전기의 범종연구> <한국고대 유리제유물소고> 등 60여편에 이르는 논문에서 특히 한국 범종의 편년과 양식의 체계화에 기여한 큰 몫을 인정받고 있다.

지나해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에서 정년퇴임한 후 집필과 문화강좌 등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회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위원은 책을 끝내자 앞으로 써야 할 책들의 계획으로 마음이 바쁘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범종》을 꼭 쓰고 싶고 《삼국시대 장신구》와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용구》도 정리해보고 싶다. 아직도 우리의 유물유적을 함부로 대하는 '무심한 사람들'에게 불같이 호통을 치는 이위원의 신앙 같은 문화재 사랑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등불인 셈이다. — 김지원 기자